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일보
kyeonggi.com

인천광역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1988년 8월 8일 창간 제9721호 안내 032-439-2020
인 천
음력 9월 3일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지하에 적하장·직원실… 화재땐 대형 참사 우려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화재 취약 구조적 문제 심각

불타기 쉬운 물품 상자 '산더미'
닫혀야 하는 방화문은 열려있어
7명 목숨 잃은 대전점과 판박이
"소방서와 전직원 대피훈련 실시"

7명의 목숨을 앗아간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의 화재 참사는 작업장의 구조적 문제에 따른 인재(人災)로 인천 송도점과 경기도 김포점 등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은 모두 이번 참사가 발생한 대전점과 같이 지하에 적하장, 직원 사무실, 휴게실 등이 자리잡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시 유독성 연기를 피할 수 없고, 피란이 어렵단 의미다.

27일 오전 10시께 인천 연수구 현대 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의 지하 2층 주차장. 직원들이 주차장 4곳 모서리 적하장에 쌓여 있는 상자들을 손수레를 이용해 매장으로 나르고 있다. 적하장에는 물품을 실은 1t 트럭들이 계속 들어오고, 운전자들은 트럭 화물칸에서 상자들을 내린다. 적하장에는 물품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이 상자들은 대전점 화재를 일으킨 것과 같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소재(종이)다.

송도점의 지하 2층 주차장은 면적이 2만5천454㎡로 메머드급이다. 화재 발생 시 대전점처럼 대피 거리가 그만큼 길다는 얘기다.

특히 지하 3층 주차장에는 직원을 비롯해 환경미화직원 등 파견직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탈의실 휴게실 등이 있다. 소방기본법상 항상 닫혀 있어야 하는 지하 3층 입구 방화문은 열려있다. 적하장에서 화재가 나면 이들이 지하 2층을 거치지 않고 빠져 나올 비상 대피로 등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점 화재가 아웃렛 영업 전인 오전 7시45분께 발생했는데도 환경미화직원 등 용역직 노동자 7명이 사망했다. 손님이 많은 영업 시간대에 불이 났으면 더 많은 사상자가 날 수 밖에 없다. 이곳 송도점도 적하장에서 화재가 나면 대전점과 같거나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27일 인천 연수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지하 2층 주차장 하역장에서 관계자들이 화물차에서 물품을 내리고 있다(사진 왼쪽). 같은 시간 소방기본법상 항상 닫혀 있어야 할 지하 3층 직원 사무실의 방화문이 열려 있다. 이민수기자

특히 송도점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화재 대피 훈련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파견직 근무자는 "화재 발생을 가정한 대피 훈련을 1개월에 1번 정도 했다"면서도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뜸했다"고 전했다.

백창선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교수(전 한국소방산업기술이사)는 "현대 프리미엄아울렛은 구조상 지하 적하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며 "화재에 취약한 적하장이 지상에 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송도점 관계자는 "오픈 시기에 따라 당시 인허가 기준이 다르고, 설계에 반영한 부분이라 각종 특이한 상황을 답변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송도점은 2016년 문을 열었는데 지하 연계형 복합건축물이라 사전 재난영향성평가를 받아 설계가 이뤄졌다"며 "소방 시뮬레이션을 해서 준공 당시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송도소방서와 합동으로 파견직을 포함한 전 직원이 화재 대피 훈련을 했다"며 "대피훈련을 1개월마다 꼬박꼬박 했는데 7월이 마지막"이라고 했다.

주영민·이민수기자 관련기사 3면

중구 배수지 건설 수개월째 제자리

인천시가 중구 용유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하는 배수지 건설 사업이 9개월째 멈춰서 있다. 송·배수관이 지나가는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사업비 433억원을 들여 중구 을왕동 34의10 일대에 5.76㎞ 길이의 송·배수관을 갖춘 배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배수지는 서구 공촌하수처리장에서 정화한 깨끗한 수돗물을 1일 1만6천㎥까지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용유지역 배수지와 공촌하수처리장을 연결하는 송·배수관 공사를 하지 못해 공정 89%에서 9개월째 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시는 5.76㎞의 송·배수관 가운데 0.55㎞ 구간을 마시란로77~용유역에 설치해야 하지만, 수개월째 부지 소유주로부터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구간의 소유주는 모두 18명이지만, 시가 현재까지 동의를 받은 소유주는 단 4명에 불과하다.

시는 나머지 소유주들에 대해 동의 요청을 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인해 수개월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소유주는 개인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아예 연락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현재 이들 소유주의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어서, 송·배수관 공사의 재개는 기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동의 못 받아
송·배수관 공사 89%서 중단
사실상 무기한 연기 가능성
市 "대체 부지 확보 최선"

특히 시는 중구가 송·배수관 설치 예정지 인근에 새 계획도로를 건설하면 도로 공사와 함께 0.55㎞ 구간의 송·배수관을 함께 설치하는 대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도로 공사가 빨라야 오는 2024년 말에나 이뤄지는 데다, 구가 계속 도로 건설을 미루고 있어 배수지 건설은 사실상 무기한 연기 상태에 놓여 있다.

이 배수지가 들어서지 못하면 용유지역 주민들은 고도처리 과정을 통과한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한다. 만약 배관 노후화 등으로 누수 등이 발생하면 단수 조치 등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소유주들에게 동의 요청을 해 배수지 사업을 끝낼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이어 "중구와도 협의해 대체 설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지용기자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본격 시동

중·동구, 市에 기본계획 반영 건의
"연말까지 결정… 사업 성공 노력"

인천 중·동구지역의 항만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시동을 건다.

2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중·동구는 최근 시에 제물포 르네상스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며 경제·산업·관광 활성화 및 도시재생 등과 관련한 사업 각각 20개와 15개를 건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부터 '제물포 르네상스 추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대상사업'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

중·동구는 제물포 르네상스 성공을 위해서는 침체한 동인천역 인근을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했다. 중구는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정상화를, 동구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의 정상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중·동구는 또 시가 구상하는 '월미관광특구'에 월미도와 연안부두, 북성포구를 잇는 교통망과 관광사업이 필요하다며 제물포 르네상스 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중구는 내항과 월미도에 '인천 아쿠아 컴플렉스'와 '내항 해양친수공간 조성' 등 시민의 해양 접근성 확보와 KTX 인천역 연장과 같은 교통편의를 높이는 각종 사업도 건의했다.

중구 관계자는 "동인천역 인근은 인천의 심장이었지만 이제는 침체한 원도심의 상징이 됐다"며 "구청장 공약 사업을 비롯해 막대한 사업비로 자체 추진이 어려운 사업 등을 우선 건의했다"고 했다.

동구는 문화 예술의 거리 조성을 비롯해 복합문화공간인 배다리 아트스테이 조성 사업 등의 반영을 건의했다. 동구는 이를 통해 문화 활성화와 낡은 공업지역 이미지를 벗어나 기업 유치 등이 가능한 만큼, 일자리 확충을 통한 청년 인구 유입 등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현안 사업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가면 추진 동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와 함께 원도심이 부활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시는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인천 내항을 경제자유구역(FEZ)으로 지정해 원도심의 경제·관광·교통·주거 환경을 탈바꿈시키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중·동구에서 건의한 사업들을 검토해 연말까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중·동구와 협력해 추가 사업 및 정책을 발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지혜기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 201104-중-113259
건강관리의 시작
건강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인천
문의 : 032-890-8700